

# 人體 穴 자리 名義의 漢字學的 研究

## -建築物과 有關한 穴자리를 중심으로-

이 호 직\*

< 目 次 >

- |                     |         |
|---------------------|---------|
| I. 序論               | III. 結論 |
| II. 建築物과 有關한 穴名의 意義 |         |

< 국문 초록 >

동양에서는 인체의 오장육부가 체표면에 보내는 반응점이며 치료혈인 경혈을 발견하였으며 각 혈자리에 한자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 漢字는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해서의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였는데, 또한 경혈명에 쓰인 한자도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고려된다. 현재 경혈명에 쓰인 名義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자가 가지는 六書의 원리와 形, 音, 義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인체의 361개 혈자리 중에 건축물과 유관한 한자를 선별하였다. 地倉(위경4번)혈의 倉, 靈臺(독맥10번)의 臺, 天牖(삼초경16번)의 牖, 極泉(심경1번)의 極자등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한자는 자형이나 자음이 본래와 달라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혈자리가 가진 名義를 파악하기 위해 허신의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여러 전적뿐 아니라 한의학에서 제시하는 名義와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聲部와 字形을 중심으로 고대자형의 분석을 통한 자형연변과 자음, 자원을 살펴보았다.

\* 공주대학교 대학원 한문교육과 박사과정 / bule7028@naver.com

地倉혈은 입의 입 꼬리 가장자리에 있는데 '地'는 땅의 기능과 안면부에서 입이 天, 地, 人에서 地에 해당되는 위치를 고려하였고 '倉'은 地倉혈이 胃경락에 속하고, 胃가 곡식의 저장고라 이름 한 것이다. 靈臺혈에서 '靈'은 심장이며 '臺'는 형성자로 臺가 관리 감독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고대 건축물에 비유하여, 인체에서 심장이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능과 같아 지칭하였고, 天牖혈에서 '天'은 그 혈이 귀의 옆에 있고 '牖'는 귀를 고대 창문의 기능에 비유해 지은 것이다. 極泉혈은 그 혈이 겨드랑이 아래에 있어 처마의 형태라 '極'이라 하였고, 泉은 샘처럼 처음 시작하는 곳이라서 이름 하였다.

인체의 혈자리에 쓰인 한자의 形, 音, 義와 자원을 분석하여 정리한다면 한자학과 한의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형연변, 자원분석, 名義, 자음, 경혈

## I. 序 論

인류는 개인 및 사회가 이루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소통하고 그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서로 약속된 부호 체계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천문,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담아 후세들에게 전달하였다.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학 또한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발견하고 정리한 의학 지식을 교육하고 전하기 위해 역시 문자라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동양의학은 민간요법 외에 침과 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침과 뜸을 놓는 자리는 인체의 오장육부가 체표면에 보내는 반응점이며 치료점이다. 후에 이 반응점을 경혈이라 칭하였고 각각의 혈 자리에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동양의학의 모태가 중국이기 때문에 경혈의 이름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혈 자리에 쓰인 한자는 그 혈 자리의 기능 및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 표준 혈자리는 12경락의 임맥과 독맥선상에 361혈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체의 361개 혈 자리 중에서 地倉, 靈臺, 天膈, 極泉 혈에 쓰인 한자의 자원 및 자형을 분석하여 혈 자리와 한자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穴名은 어느 한 순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쓰인 한자의 숫자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체계화 되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혈 자리에 쓰인 한자는 소멸되기도 하고 다른 한자로 대체되기도 하였다.<sup>1)</sup>

孫思邈(589~907)은 『千金翼方』에서 “모든 經穴의 이름은 그냥 붙은 것이 아니며 모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凡諸孔穴 名不徒設 皆有深意)”<sup>2)</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손사막의 주장은 혈명과 한자의 관계를 규명할 중요한 단서이며 혈 자리의 위치 및 기능이 한자의 字義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인체의 혈자리나 穴名에 대한 연구는 황제내경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현재도 그와 관련된 논문이나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의 저술일 뿐이며 국내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穴名에 대한 연구는 부수별 분류나 의미적 해석

1) 李鎬植 「穴자리의 한자학적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19, p.6. 인용

經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침구의 역사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鍼灸는 침과 뜸을 말하는데,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자리로써 경혈의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穴과 鍼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鍼灸는 기원전3000~2000년 경 중국의 황하유역에서 발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기시대에는 石鍼이 사용되었고, 기원전500년 경 철기시대에는 鐵鍼이 사용되었다. 중국의 침구 의술은 周代(기원전2~1세기)에 급속도로 발달하였으며, 鍼灸의학이 정비된 서적은 前漢(기원전 202년)시대 『黃帝內經』이며, 『黃帝內經』에 기재된 경혈의 총수는 163穴이다. 경혈학의 기초는 晋代의 皇甫謐(214~282)의 『針灸甲乙經』에서 349穴의 경혈 부위를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비로소 확립 되었다. 隋唐時代(589~907年)에는 한의학이 급속도로 진보한 時期이며, 이 시대에 撰述된 서적은 방대한 수에 이른다. 孫思邈(581~682年)은 『千金方』(7세기말) 30권을 저술하여 醫學一般에 관해 논하였다. 『千金方』에 경혈 348혈을 기재하여 그것의 응용을 밝혔다. 현행 361穴의 출현은 唐代中期에 王冰의 『重廣補注帝內經素問』의 新經穴과 北宋初期에 王懷隱의 『太平聖惠方』의 新經穴을 합하여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2) 백봉 정대협 편역, 『천금의학』, 도서출판 도화연, 2017, p.590.

차원일 뿐 설문해자를 비롯한 여러 문자학서와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한 비교분석은 보이지 않는다.<sup>3)</sup>

한의학은 동양에서 오랜 세월동안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수단 입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의 도입 후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서양에서는 한의학의 경락, 경혈과 해부학의 신경, 근골격계를 접목한 ‘응용근신경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영상의학의 발달로 어떤 혈자리에 자침 시 뇌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혈자리가 인체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밝혀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의학이 결코 비과학적인 영역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체 혈 자리의 명칭은 한자의 字義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혈 자리의 명칭을 정하면서 그 위치, 기능, 형태 등 모든 면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한자의 자원과 자형의 연변과정을 분석하여 혈 자리에 쓰인 한자와 혈 자리 名義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한자학과 한의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穴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한자가 가지는 形, 音, 義 3가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문자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형의 자원분석과 연변을 통하여 어떤 근거로 혈 자리의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李鎬植, 「穴자리의 한자학적연구」, 공주대석사논문, 2019, p.7

혈 자리와 관련된 연구논문에는 중국의 趙憲彪의 『漢語言文字學與中醫學基礎的辨證關係研究』, 『齊齊哈爾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14)와 董譽霞의 『中醫穴位術語命名認知研究』(2015), 西南民族大學 碩士論文, 그리고 王奇偉의 『漢語經穴命名研究』(2011), 吉林師範大學 碩士論文 등이 있다.

穴의 名稱에 관한 분류에는 上海中醫學院編 『鍼灸腧穴學』에서 水流와 山谷, 動植物 및 生活用具, 建築物와 人事活動의 명칭, 天象과 位置에 대하여 분류해 놓았다. 또한 현대의 저서로는 중국의 李智가 지은 『經絡經穴103』에서 혈 자리를 분류하면서 海, 淵, 泉, 溝, 瀆, 池, 渚와 같이 한자는 水를 부수로 하였기 때문에 氣穴量의 多少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里, 道, 實, 舍, 門, 戶 등은 길이나 집과 관련이 있는 한자이므로 기혈의 도입과 출입하는 곳을 의미하며, 梁, 丘, 陵은 높은 곳이나 언덕과 유관하므로 빠나 살집이 높이 솟은 곳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II. 建築物과 有關한 穴名의 意義

### 1. 地倉

地倉은 足陽明胃經의 4번째 자리로 그 部位는 口 角旁 4分이며, 주치는 안면마비, 침흘림, 삼차신경통, 안면근육경련<sup>4)</sup> 등이다.

地倉 이라는 穴 자리에 쓰인 ‘地’와 ‘倉’의 字源과 字형을 분석하여 穴名과 漢字 字의의 上關關係를 살펴보겠다.

#### 1) 地의 字源

##### (1) 地의 字源분석

許慎은 地에 대해 『說文·土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地는 ‘원기가 처음 나뉘는 것’이다. 가볍고 맑은 것은 陽으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陰으로 땅이 된다. 만물을 늘어놓은 것이다. 土가 뜻을 나타내고 也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徒內切(지←대)이다. 隤는 주문 地로 隤(진)를 따른다.(地, 元氣初分, 輕清陽爲天, 重濁陰爲地, 萬物所陳列也. 从土, 也聲. 徒內切. 隤 籀文地从隤.)<sup>5)</sup>

許慎은 ‘地’의 본의를 ‘원기가 처음 나뉘는 것’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元은 ‘처음’이다. 『陰陽大論』에 ‘황제가 기백에게 물었다. ‘땅이 아래인가 아닌가.’ 기백이 말하였다. ‘땅은 사람의 아래입니다. 大虛의 가운데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기운이) 성한 것인가’ 기백이 말하였다. ‘큰 기운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 땅의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볍고 맑은 기운

4) 李炳國, 『알기쉬운 經穴圖』, 침코리아 사이버 아카데미 출판부, 1988, p.39.

5)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2009, p.286.

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쇠하지 않는다. (元者, 始也. 陰陽大論曰. 黃帝問於岐伯曰. 地之爲下否乎. 岐伯曰. 地爲人之下. 大虛之中者也. 黃帝曰. 馮乎. 岐伯曰. 大氣舉之也. 按地之重濁而包舉乎輕清之氣中. 是以不墜.)<sup>6)</sup>

단옥재는 땅의 기운을 무겁고 탁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운이 매우 커서 모든 만물을 길러내고 변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말한 것이다.

다음은 『古文字詁林』에서 地의 자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이다.

嚴一萍: 陞는阜와土로 이루어 졌고 也가 소리를 나타낸다. 이것은 地자이다. 李棫齋先生 또한 地자로 예정하였다. 『說文』에 地가 土를 따르고 也가 소리를 나타낸다고 한 것은 당연히 陞의 생략형이다. (陞 陞从阜从土也聲. 此地字. 李棫齋先生亦定爲地字. 說文... 地从土也聲. 當是陞之省)

馬叙倫: 高田忠周는 “漢나라 이전에는 ‘也’ 자가 없었다. 옛날에는 ‘它’ 자를 썼다. 古文에는 池자를 沱로 썼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卜辭에는 土자는 있지만 地자는 없다. 周에 이르러 天地의 이름이 시작되었다.” 생각건대 地자는 二자의 後起字이다.(高田忠周曰. 漢以前無也. 古有作它. 地當從土它聲. 古文池字作沱. 可證也. 至周始有天地名. 卜辭有土而無地. 倫按地爲二之後起字.)<sup>7)</sup>

地의 초기자인 陞와 陞는 也와 它자로 이루어졌다. 高田忠周 의하면 漢나라 이전에는 ‘也’자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현재 ‘也’의 자형을 취한 한자들은 한나라 이전에 대부분 ‘它’의 자형을 취했다. ‘也’를 它로 편방으로 취한 예는 池와 沱에서 보인다.

馬叙倫이 高田忠周에 “漢나라 이전에는 ‘也’자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다음의 자형에 대한 고찰로 설명할 수 있다. 池의 자형은 甲骨文, 金文, 小篆에는 보이지 않고, 그 이후의 자형에만 보인다. 隸書에 그 자형은 다음과

6)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p.682.

7)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10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p.194-195.

같다. 古隸에 池(居延簡甲832), 今隸에 池(史晨碑)자가 보인다.<sup>8)</sup> 반면에 沱자는 갑골문을 제외한 이후의 자형에서 모두 보인다. 金文(通篇)<sup>9)</sup>, 小篆(설문해자), 隸書의 古隸에는 沱(睡虎地簡53:34), 沱(相馬經16上)이고, 今隸에는 沱(熹詩漸漸之石)<sup>10)</sup>이다.

‘地’는 陰으로 원기가 처음 나뉘는 것이고 만물을 담아 기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위도 음식물을 저장하고 소화하여 인체의 기를 생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땅의 기능에 비유하여 ‘地’자를 쓴 것이다.

<표 1> 〈字形表〉

字形 字體	甲骨文	金文 <sup>11)</sup>	小篆	隸書 <sup>12)</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불견						地. 墜
出典		鬲壺	說文解字	相馬經20下	孫子27	石門頌	

地는 소전 이후부터 그 자형이 보이고 地의 본자인 墜는 금문에 보인다. 籀文은 墜(地), 墜, 墜의 자형으로 표현하였는데, 주문 隸자의 構件 冢과 也가 它로 대체되어 현재의 地자 형태로 연변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자형 地는 土와 也가 결구되어 있다. 土는 땅 위에 흙을 쌓아놓은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갑골문 자형 𡗗(前6.61.5)<sup>13)</sup>의 윗 부분 원추형은 흙무더기(‘𡗗’)를 상형한 것이고 아래의 一은 지면을 표시한 것이다. 금문은 土(鬲壺881면)<sup>14)</sup>에서는 흙무더기를 큰 점(‘𡗗’→‘土’)으로 표시하였다. 소

8)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775.

9) 容庚 編著, 『金文編』, 1992, p727.

10)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1985, p774.

11)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82.

12)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963.

1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景印, 1964, p.518.

전(土)에서는 점을 一의 형태로 썼는데, 고예 土(睡虎地簡3.56), 금예 土(衡方碑)<sup>15)</sup>로 자형의 변화가 거의 없이 예서로 이어졌다.

也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它자로 나타냈다. 그러므로 也의 자형은 它의 자형에 근본 한다고 할 수 있다. 它의 갑골문 𠄎(𠄎 13.4.𠄎乙8896)<sup>16)</sup>는 뱀(𧈧)이 밭(𧈧)을 물려고 하는 형상을 상형한 것이다. 금문 𠄎(它, 𠄎浸子它簋, 𠄎文且它公)<sup>17)</sup>에서는 뱀의 머리 부분이 뾰족한 꼭지가 있는 둥근 원형(人→宀)으로 변하였고 꼬리는 한 줄의 꼬부라진 모양에서 3개의 줄무늬(𠄎→𠄎)가 있는 몸과 꼬리의 형태로 썼다. 소전은 𠄎로 썼는데 가운데의 줄무늬는 사라지고 양 외측의 선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를 더 강조한 형태가 되었다. 고예는 𠄎(睡虎地簡24.21)에서는 뱀의 꼬리 오른쪽 외측 부분을 짧게 하고 왼쪽의 꼬리선만 강조한 형태가 되었다. 금예는 𠄎(居延簡甲129)<sup>18)</sup>의 뱀의 머리 부분은 𠄎(宀→宀)형태로 바뀌었고, 아래로 곧게 뻗은 곡선형의 꼬리는 가로로 길게 뻗은 燕尾(𠄎→𠄎)형태로 연변되었다.

𠄎에서 也의 자형은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소전은 𠄎인데 머리의 꼭지가 2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它의 자형과 유사하다. 고예 𠄎(相馬經20下)과 𠄎(孫子27)에 쓰인 也는 머리의 꼭지가 하나인 형태로 소전의 也(𠄎)보다는 소전 它(𠄎)에서 변화한 它의 고예 𠄎(睡虎地簡24.21)의 자형과 유사하다. 이것은 也와 它자는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금예 𠄎(石門頌)의 也는 직선적이며 5획으로 쓰던 것을 3획으로 간략화(宀→宀→宀), (宀→宀→宀), (宀→宀→宀)하였다 也의 고예 𠄎(睡虎地簡15.103)는 원형의 머리 부분이 一형태(宀→宀)로 평직화하였고, 금예 𠄎(孫臏

14)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81.

15)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961.

1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11.

17)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76.

18)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958.

163)는<sup>19)</sup> 둥근 모양으로 썼던 머리의 모양을 왼쪽으로 꺾인, 冫( 冫 → 冫)의 형태로 썼다. 가운데의 冫 형태에서 몸과 꼬리 부분인 오른쪽 쪽의 획은 也의 가운데 획 | (冫 → 冫 → |)이 되었고 왼쪽의 긴 획은 冫( 冫 → 冫 → 冫)로 연변되었다.

## 2) 倉의 字源

### (1) 倉의 字源 분석

許慎은 倉에 대해 『說文·倉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倉은 '곡식 저장소'이다. 서둘러 가져다가 그것을 저장하므로 그것을 倉이라고 말한다. 食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었으며 口는 창고의 모양을 상형하였다. 倉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倉의 의미를 따른다. 반절은 七岡切(창)이다. 倉은 倉의 奇字다.(倉, 穀藏也. 倉黃取而藏之, 故謂之倉. 从食省, 口象倉形. 凡倉之屬皆从倉. 七岡切. 倉, 奇字倉.)<sup>20)</sup>

許慎은 '倉'의 본의에 대해 '곡식 저장소'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藏은 마땅히 臧으로 써야한다. 臧은 원래 '좋다'라는 뜻이다. 인신된 의미로서 잘 보관해 두는 것도 臧이라고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관해 두는 창고 또한 臧이라고 한다. 속어로는 모두 藏으로 쓴다. 穀藏이란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곳이다. 『說文·廌部』에서 '府는 文書의 저장고이고, 庫는 병기와 수레 창고이고, 廩은 여물을 저장하는 창고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발음은 모두 徂와 浪의 반절(장)이다. 倉은 서둘러 가져다가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다. 蒼은 옛날에는 倉으로 썼다. 지금 바로잡는다. 蒼黃은 서둘러 급하게 한다는 뜻이다. 수확물을 벨 때는 신속한 것을 귀히 여긴다. 그래서 그것을 倉이라고 한다. 蒼과 倉은 韻이 같다.

19)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95.




20)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2009, p.109.

(藏當作臧. 臧, 善也. 引伸之義, 善而存之亦曰臧. 臧之之府亦曰臧. 俗皆作藏. 穀藏者, 謂穀所藏之處也. 广部曰. 府, 文書藏. 庫, 兵車藏. 廩, 芻藁藏. 今音皆徂浪切. 蒼黃取而臧之. 蒼, 舊作倉. 今正. 蒼黃者, 匆遽之意. 刈穫貴速也. 蒼倉疊韻.)<sup>21)</sup>

段玉裁는 저장하는 물건의 종류에 藏과 臧, 府, 庫, 廩, 倉등을 설명하였고 倉은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는 곳집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古文字詁林』에서 倉의 자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이다.

朱芳圃: 倉은 匚의 本字이다. 『說文』 匚部에... 匚은 옛날의 그릇이다. 匚이 뜻을 나타내고 倉이 소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匚은 그릇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위와 아래는 그릇과 뚜껑이(器蓋) 서로 합해진 모양이다.(倉卽匚之本字. 說文匚部... 匚. 古器也. 从匚倉聲), 匚象器形, 上下象器蓋相合.)

陳獨秀: 倉은 金文에  모양이고, A 형태는 집의 꼭대기 미친 梁이며 솜과 더불어 같다. 匚는 기둥이 없다. 창고의 모양이다. 가운데의 一의 모양은 창고 가운데의 저장한 물건이다. 匚은 솜과 더불어 기단을 상형한 것이다. 篆文에 쓴 倉자는 대략 고문과 같다. 오직 倉의 모습을 상형한 것이 匚이고 왼쪽의 획을 연장한 것이다.(倉 古金文作 , A爲屋頂及梁與舍同, 匚無柱, 象倉形, 中一象倉中所藏之物, 匚象基亦與舍同. 篆文作 篆文作略同古文, 惟象倉形之匚左畫延長.)

丁山: 옛날에는 天子가 밖에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장막(帷幄)을 설치해야만 한다. 장막(帷幄)의 가운데에는 반드시 병풍을 펴야한다. 冢의 가운데는 冢이다. 바로 그 모양은 뒤에 널빤지 병풍의 형태이다. 그 바깥의 冢은 그 모양은 장막이며 땅과 위에 펼친 형태이다. 당연히 冢의 初字이다.(古者天子有事於外. 必設帷幄. 帷幄之中必施屏風. 冢中之冢. 正象後版屏風之形. 其外之冢. 正象帷幕在地施展於上之形. 當卽冢之初字.)<sup>22)</sup>

21)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p.223.






22)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5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410.

그림1) <https://blog.naver.com/xiuya662020년> 1월12일 11시18분

倉은 곡식의 저장소인 곳집과 옛날의 소형그릇을 상형한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의 倉 자형은 장막과 병풍을 상형하였는데 𠂔(宀)은 성부이다. 地倉혈은 위경락에 속하며 입 근처에 있는 혈자리로 입이 음식물의 일차적 통로이며 또한 위의모양과 저장소라는 기능을 고려하여 혈명으로 썼다.

(2) 倉의 자형 演變

<표 2> 〈字形表〉

字形 字體	甲骨文		金文 <sup>23)</sup>		小篆	隸書 <sup>24)</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a <sup>25)</sup>	 b <sup>26)</sup>						
出典	前7.31.4	通別 2·10·7	弔倉 父盨	宜陽右 倉簋	說文 解字	老子乙 前5上	西狹頌	

倉은 人, 宀(宀), 戶, 口로 이루어진 한자이다. 倉자에서 人은 장막, 창고, 또는 저장고의 덮개나 지붕이고 宀은 들보이다. 갑골문 𠂔·A, 금문 A·宀, 소전 A과 고예 宀, 금예 宀의 형태는 모양이 유사하며, 갑골문, 금문은 지붕의 모양을 둥글거나 경사진 모양으로 표현했지만, 고예 宀, 금예 宀에서는 人이 옆으로 넓게 벌린 모양으로 변하여 人의 형태로 썼다.

倉자의 가운데 부분은 戶로 외쪽 문을 나타낸 것이다. 갑골문은 𠂔, 𠂔로, 금문은 𠂔, 𠂔로, 소전은 𠂔, 고예는 𠂔, 금예는 𠂔의 모양으로 썼다. 대부분의 지계문이 아래가 길지 않은 형태를 취하였는데 소전부터는 문

23)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365.  
 24)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340.  
 25)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393.  
 2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景印, 1964, p.240.

의 축이 되는 부분이 길어진 형태이며, 帛書갑골문에서 𠄎이 쓰인 것은 금문 이전에는 𠄎과 𠄎을 혼용하여 썼기 때문이다.

戶의 자형은 갑골문편은 戶(甲589)<sup>27)</sup>, 소전은 戶(설문해자), 고예는 戶(睡虎地簡11.21), 금예는 戶(曹全碑)<sup>28)</sup>로 썼다. 금예에서는 문의 상부가 다른 자형에 비해 길이가 긴 一(一)의 형태가 되었고 문의 축(ノ) 또한 굴곡이 많은 형태이다. 소전과 고예에서는 현재의 자형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로 획이 분리되는 현상(戶→戶)이 보인다.

倉자의 아래 부분은 저장고의 바닥이나 주춧돌을 나타내었는데 갑골문 倉·倉, 금문 倉 —, 소전倉, 고예倉, 금예倉로 썼다. 소전 이전의 자형은 둥근 주춧돌 모양이 입의 꼬리처럼 양쪽의 획이 위로 뻗어 나와 있었으나 예서부터는 각진 형태를 취하였다.

### 3) 穴 자리의 名義

地와 倉은 地倉이라는 혈 자리에 쓰인 한자이다. 다음은 地倉(足陽明胃經4)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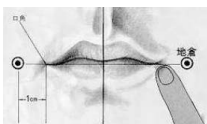


그림 1. 地倉

『甲乙』에 '地倉'은 입술(口吻) 가까운 옆 四分바깥쪽에 있다. 근처 아래에 작은 동맥이 있다. 입으로 곡식이 들어가서 地倉이라고 한다. 입술은 얼굴의 아래에 있어서 '地'라고 한다. 地氣는 입으로 통한다. 五穀을 먹으면 반드시 입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地倉'이라고 하였 다. (『甲乙』地倉 夾口吻旁四分外 如近下微有動脈 口以入穀 故謂地倉 唇在面之下部 故謂地也 謂地氣通於口 食五穀必經於口 故名地倉.)<sup>29)</sup>

古事に 옛 사람들은 코를 중심으로 삼등분하여 코 윗부분을 天, 아랫부

2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1964), 『甲骨文編』, p464.

28) 漢語大字典形組編(1985), 『秦漢魏隸字形表』, p841.

29) 李相龍, 『經穴學』, 청홍(지상사), 2007, p.172.

분을 地, 중간부분을 人이라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인체기관을 각각의 기능 및 분배된 직무에 근거하여 비유한다. 脾와 胃는 음식물을 흡수 소화시키므로 물건을 그 안에 넣어 놓고 사용하는 창고의 모양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고를 관리하는 관직에 비유되어 ‘倉廩之官’이라고 하였다.<sup>30)</sup>

‘地倉’ 혈은 胃의 경락에 속하므로 地자를 穴名에서 취한 것은 안면부에 위치한 것과 地자가 가지는 陰陽五行상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는 『康熙字典』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白虎通』에 땅은 변하게 한다. 이 말은 萬物을 길러내고 懷任하면 서로 바뀌어 변화한다는 것이다. 『釋名』에 ‘땅은 낮은 것이고, 그 體의 바닥(底下)이며, 만물을 가득 실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易說卦傳』에 坤이 地라고 하였다.” (『白虎通』地者, 易也, 言養萬物懷任交易變化也. 『釋名』地, 底也, 其體底下. 載萬物也. 『易說卦傳』坤爲地.)<sup>31)</sup> 또한 胃는 六腑 가운데 五行상 土에 해당하는 장기이다. 五行에서 방위가 中央이고, 色은 黃이고, 五化는 化에<sup>32)</sup> 해당된다. 五窺는 口, 五華는 脣, 五體는 肉이며 팔괘취상도에서 괘명은 坤이고 五行五色은 黃土이며 自然은 地에 배속된다.

‘倉’자는 字源에서 곡물의 저장소인 곳집이며, 자형에서도 古器와 帳幕을 상형한 것이다. 胃는 음식물의 일차적인 저장소이므로 胃를 ‘곳집’에 비유하여 이름한 것이다. 또한 ‘地倉’ 혈은 위경락에 속하므로 위의 모양과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창고를 의미하는 漢字 중에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창고인 ‘倉’자를 선택한 것이다.

30) 리즈(李智) 권승원, 김지혜, 한가진 번역『經絡經穴103』, 청홍(지상사), 2017, p.160.

31) 陳廷敬張玉書 著,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12, p.156.

32) 박선영·김호연, 『韓醫學原論』, 도서출판異彩, 2016, p.14.

한의학에서는 생명체의 생존기간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식물은 生長化收藏으로, 동물은 生長壯老已로 구분한다. 生은 생명이 처음 생성되는 것, 長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 化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收는 거두어 수확 것, 藏은 공간에 저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壯은 건장하고 힘이 센 것을, 老는 늙음을, 已는 죽음을 의미한다.

## 2. 靈臺

靈臺는 督脈의 10번째 자리로 그 部位는 제6~7흉추 극돌기 사이(第6~7 胸椎棘突起間)이며, 해수, 천식, 등의 통증, 뻣뻣한 목 등에 주로 쓰인다.<sup>33)</sup>

다음은 靈臺라는 혈자리에 쓰인 '臺'의 자원과 자형을 분석하여 혈명과 한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 1) 臺의 字源

#### (1) 臺의 資源분석

許慎은 臺에 대해 『說文·至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臺는 '사방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이다. 至와 之로 이루어져 있고, 高는 생략되었다. 室과 屋이 같은 의미이다. 반절은 徒哀切(대)이다. (臺觀四方而高者. 从至从之, 从高省. 與室屋同意. 徒哀切.)<sup>34)</sup>

許慎은 '臺'의 본의에 대해 '사방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이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觀은 四方의 형태이면서 높은 곳이다. 『釋名』에서 '觀은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觀望하는 것이다. 반드시 四方을 볼 필요는 없다. 사방에서 돌출하여 높은 것을 臺라고 한다. 『詩經·大雅』「文王之什靈臺」의 '영대를 경영하여 시작해서'에 대해 『爾雅·釋宮』과 毛傳에 이르기를 '사방이 높은 것을 臺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毛傳』에 의하면, 높기는 하나 四方은 아닌 것을 觀이라고 하고, 闕이라고 한다. 『釋名』에서 '臺는 지탱하다.'라고 하였다. 흙을 견고하고 높게 쌓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臺와 持를 같은 소리로 읽었다. 心을 靈臺라고 하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이른다. 『淮南子』 '그 정신이 살고 있는 곳은 특별히 커서 太清에 노니는 것처럼 한다.'의 注에서



33) 李炳國, 『알기쉬운 經穴圖』, 침코리아 사이버 아카데미 출판부, 1988, p.184.

34)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2009, p.247.

‘臺는 지탱하는 것이다. 또한 ‘살피는 바가 없는 것을 狂生(방탕한 사람)이라고 한다.’의 注에서 ‘臺는 지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臺를 써서 스스로 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간혹 古文으로는 握자를 썼다. 古文 握과 臺의 형태는 서로 비슷하다. 李巡注『爾雅』에서 ‘臺위에 屋이 있는 것을 謝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屋이 없는 것은 臺이다. 亼(之)가 성부이다. (觀四方而高者也. 釋名曰. 觀. 觀也. 於上觀望也. 觀不必四方. 其四方獨出而高者. 則謂臺. 大雅. 經始靈臺. 釋宮. 毛傳曰. 四方而高曰臺. 傳意高而不四方者則謂之觀. 謂之闕也. 釋名. 臺. 持也. 築土堅高能自勝持也. 古臺讀同持. 心曰靈臺. 謂能持物. 淮南子. 其所居神者. 臺簡以游大淸. 注. 臺. 持也. 又臺無所鑿. 謂之狂生. 注. 臺. 持也. 此皆作臺自可通. 或作古文握. 古文握與臺形相似. 李巡注爾雅曰. 臺上有屋謂之謝. 然則無屋者謂之臺. 亼聲.)<sup>35)</sup>

段玉裁는 고대의 건축물을 형태와 기능에 따라 臺, 觀, 謝, 握<sup>36)</sup>로 분류하였고, 臺는 높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리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古文字詁林』에서 臺의 자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이다.

林義光: 亼모양은 臺의 형태를 상형한 것이다. 至가 亼 아래에 있는 모습을 따랐다. 亼의 상부 亼은 臺의 소리를 나타낸다. (亼 按象臺形. 从至其在下. 亼聲.)  
 馬叙倫: 臺는 象形造字이다. 初文은 아마도 본래  모양으로 썼다. 篆文에 이르러 하였다. 생략하고 변형되어 𡗗가 되었다. 후에 성부 至를 더하여 臺가 되었다. 齒가 囟에 之를 더한 것과 같다. 지금 전문에서 𡗗를 따르고 至가 소리를 나타내어 스스로 하나의 부수가 되었다. (倫謂臺可象形造字. 初文蓋本作 . 及爲篆文. 省變爲 𡗗 後增至聲爲臺 猶齒至於囟矣. 如今篆爲從 𡗗 至聲. 當自爲部.)<sup>37)</sup>

臺는 亼(之), 至를 성부로한 形聲과 會意자로 본다. 亼(之)는 성부와 臺의 상부의 모양을 나타낸 상형으로 성부와 의부를 겸한 것으로 보는 것이

35)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p.585.

36) 觀은 樓閣이며, 謝는 亭子이고, 握은 帳幕을 말한다.

37)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9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488.

타당할듯하다.

(2) 臺의 자형 演變

<표 3> 〈字形表〉

字形 字體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38)</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불견	불견					
出典			說文解字	老子甲129	老子乙201上	禮器碑	

臺는 之(之), 高(高)의 생략형, 至(至)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之(之)는 땅과 발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며, 高는 고대의 이층구조의 건축물이며 高는 지붕과 아래의 성문이 생략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至(至)는 화살이 어느 지점에 떨어져 꽂힌 모습이다. 臺는 초기의 臺 형태이며 省變하여 𡩺 모양이 되었으며 至가 추가되어 성부로 작용한 형성자로 보았다. 臺의 초기글자인 𡩺과 𡩺의 윗부분의 모양을 소전에서는 之(之)의 자형으로 대신한 것으로 여겨진다.

臺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갑골문의 之(之)는 39) 발을 나타내는 止(止)와 땅의 지점인 (一)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3개의 가지는 발가락의 수를 손을 나타낸 又(又)처럼 줄여 표현하였다. 금문은 𡩺(秦公簋)<sup>40)</sup>인데 갑골문의 발가락 모양이 止(止)가 3개의 가지 모양과 一이 되었다. 소전에서는 之(之)의 자형은 금문과 유사하며 臺의 윗부분인 之(之, 之)는 자형의 공간적한계로 옆으로 넓은 형태를 취하였다. 고예 臺(老子

38)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39.

39)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270.

40)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414.

乙201上)는 之(之)자에서 발가락이(止, 止) 곡선의 형태가 남아있고 양옆의 옆으로 가지가 뺀 형태(止) 였는데, 금예의 臺(禮器碑)에서는 양옆의 발가락이 十 직선으로 고착화 되었다. 소전의 之(之)는 약간의 곡선이 존재하며 고예에서는(之 老子甲4) 금예 에서는(之 居延簡甲713)<sup>41)</sup>이다. 소전의 之(之)는 약간의 곡선이 존재하며 고예는(之 老子甲4)이며 금예는(之 居延簡甲713)<sup>42)</sup>이다. 발을 나타내는 형태의 변화는(止 → 止 → 止) 이고 땅의 지점은 다음과 같이(一 → 一 → 一) 변화였다. 高는 높게 지은 이층 구조의 누각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의 高는 畷(갑골문편5.20存310)<sup>43)</sup>인데 위층의 지붕(八)과 전망대(亓) 아래층의 가옥과(冂) 출입구(日)이다. 지붕의(八)의 가로 획은 대들보이며 전망대(亓)의 丨은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금문도 畷(금문편 秦公簋374면)<sup>44)</sup>와 같이 써서 갑골문과 유사하다. 소전은 高이며 지붕(八)은 수평이며 이층의 전망대는 日의 형태로 간략화 하였고 아래층의 구조는 금문과 유사하며 곡선화 하여 冂, 日의 형태이다. 臺자에서는 지붕과 출입구의 생략형인 冂을 취하였다. 고예 臺(睡虎地簡12.51)에서는 지붕과 이층누각 아래층의 구조가(八, 日, 日) 곡선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직선적인 면도 보인다. 금예에서는(高 曹全碑) 소전에서 지붕과 용마루 부분의 꼭지(八)가 더 명확하고 직선으로 변화였고 꼬리부분이 연미 형태이다(八) 이층누각과(日) 아래층의 구조가(日) 직선적으로 변화였다<sup>45)</sup>.

臺의 고예 臺(老子乙201上)에서 高자는 冂이며 전망대 부분(日)이 금문과 자획이 비슷하나 형태적으로는 소전처럼 폭이 넓으며 아래의 구조물(冂)도 소전의 형태와 유사하다. 금예 臺(禮器碑)에서 高(高)는 전망

41)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401.

42) 漢語大字典字形組編(1985), 『秦漢魏隸字形表』, p401.

43)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993, p.244.

44)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374.

45)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345.

대(𠄎)는 소전의 자형처럼 口와 같고 아래의 구조물(一)도 전서의 등글고 긴 형태에서 직선적이며 양옆의 세로획이 짧아진 형태이다.

至(至)는 화살이 땅에 꽂힌 모양이다. 갑골문의 𠄎(12.1)<sup>46)</sup>은 화살의 화살촉(丿)과, 화살대(丨), 꼬리부분의 깃털(彡), 땅(一)이다. 금문은 𠄎(同篇)<sup>47)</sup>인데 갑골문과 유사하며 소전에서는 화살촉(丿)과 깃털부분(彡)이 크고 넓은 곡선으로 처리 하였으며 화살대(丨)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형태로 𠄎가 되었다. 고예 至(老子乙前四下), 금예 至(禮器碑면)<sup>48)</sup>에서는 화살촉(丿)이 직선화(一)되었고, 깃털부분(彡)의 (〇)은 삼각형 모양(〇, 〇)으로 교차지점과 끝부분은(∨)→(彡, 一)자로 至, 至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또한 땅(一)은 예서의 특징인 (一, 一)燕尾(제비 꼬리 모양)가 되었다.

## 2) 穴 자리의 名義

臺는 靈臺라는 혈 자리에 쓰이는 글자이다. 다음은 靈臺(督脈10)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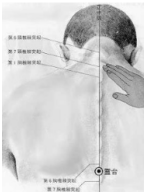


그림 2. 靈臺

『黃帝內經素問』氣府論에 靈臺는 心靈의 臺이다. 위에는 心俞혈이 있고 아래에는 膈俞혈이 있다. 가운데에는 누른 지방이 臺와 같이 겹친 것이다. 그 양옆에는 督俞혈이 연결된 곳이다. 陽氣가 그 가운데를 통한다. 心靈은 위에 살아서 靈臺라고 한다. (靈臺者 心靈之臺也. 上有心俞 下有膈俞 中有黃脂膏壘如臺 其兩旁爲督俞之所繫 陽氣通其中, 心靈居上, 故名靈臺.)<sup>49)</sup>

심장은 주나라 문왕과 동일하게 대우받아, '군주의 기관'으로 일컬었다. '靈'은 신령하다는 뜻이며 臺는 받침대 높은 기둥이나 호령하는 곳을 지칭한

46)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462.

47)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764.

48)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95.

49) 李相龍『經穴學』, 2007, 청홍(지상사), p.759.

다. 그러므로 영대는 군주가 덕을 펼치고 정치를 펼치는 곳을 의미한다. “영대는 심장이며 맑고 막힘이 없다. 그래서 우환이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sup>50)</sup>

靈은 心臟과 연관된 한자이다. 『釋名』에 心を 靈臺라고 하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靈이 심장과 연관된 한자임을 알 수 있다. 즉 心臟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名義에서 心靈은 위에 살아서 靈臺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심장의 기능과 위치를 설명한 것이다.

臺는 흙을 견고하고 높게 쌓아서 사방을 볼 수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축물을 일컫는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과 위에서 사방을 볼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의미적 요소를 심장에 비유하여 이름 한 것이다.

### 3. 天牖

天牖는 手少陽三焦經의 16번째 자리로 그 部位는 유양돌기의 후하방, 흉쇄유돌근 뒤 가장자리에 있다(乳樣突起後下方, 胸鎖乳突筋後緣). 主治는 耳鳴, 耳聾, 項強, 喉痛이다.<sup>51)</sup>

다음은 天牖 라는 혈 자리에 쓰인 ‘牖’의 자원과 자형을 분석하여 혈명과 한자 자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 1) 牖의 字源

##### (1) 牖의 자원분석

許慎은 牖에 대해 『說文·片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牖는 ‘벽을 뚫어 나무를 교차하여 만든 창문’이다. 片, 戶, 甫로 구성되어져 있고 譚長은 甫 위에 日이 있는 것으로 戶가 아니라고 여겼다. 牖는 해가 보이

50) 리즈·李智 번역: 권승원, 김지혜, 한가진 『經絡經穴103』, 청홍(지상사), 2017, p.40.

51) 李炳國, 『알기쉬운 經穴圖』, 침코리아 사이버 아카데미 출판부, 1988, p.133.

도록 하는 것이다. 반절은 與久切(유←우)이다.(穿壁以木爲交窗也. 从片, 戶, 甫. 譚長以爲 甫上, 日也, 非戶也. 牖, 所以見日. 與久切.)<sup>52)</sup>

許慎은 ‘牖’의 본의에 대해 ‘벽을 뚫어 나무를 엮갈려서 만든 창문이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벽을 뚫어 나무를 교차하여 만든 창문이다. 交窗이란 나무를 가로질러 반듯하게 하여 만드는 것이다. 즉 지금의 창문이다. 담장(牆)에 있는 것을 牖라고 하고 屋에 있는 것을 窗이라고 하다. 이것은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다. 반드시 나무로써 말한 것은 글자가 片으로 구성되어서 이다. 옛날에는 室에는 반드시 戶와 牖가 있어야 했다. 牖은 동쪽에 있고 戶는 서쪽에 있다. 모두 南쪽을 향한다. 『詩經·邶風』「七月」‘塞向墻戶’의 傳에 ‘向은 북쪽으로 난 창문이다.’라고 하였다. 북쪽은 간혹 빛이 통하는 구멍이 있다. 겨울이 이르면 막는다. 그러나 『儀禮·士虞禮』‘祝(執事)이 牖鄉을 열다.’의 注에 ‘鄉’은 牖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했다. 『禮記·明堂位』‘達鄉’의 注에 ‘牖에 속한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南牖 또한 向이라고 부른다. 牖는 빛이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차하여 誘가 된다.(穿壁以木爲交窗也. 交窗者, 以木橫直爲之. 卽今之窗也. 在牆曰牖. 在屋曰窗. 此則互明之. 必言以木者, 字从片也. 古者室必有戶有牖. 牖東戶西. 皆南鄉. 毛詩曰. 向. 北出牖也. 北或有穴通明. 至冬塞之. 然士虞禮祝啓牖鄉注云. 鄉, 牖一名. 明堂位達鄉注. 牖屬. 是南牖亦名向. 牖所以通明. 故段爲誘.)<sup>53)</sup>

段玉裁는 창 의 방향과 제작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牖은 남쪽으로 난 交窗을 말하며 戶는 서쪽 창이며 向은 북쪽창이다. 鄉또한 牖의 별칭이라고 하였다. 또한 牖는 창문의 기능인 내부를 밝게 하고 밝음이 통하는 자리임을 말하였다.

馬叙倫은 『古文字詁林』에서 牖의 자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牖가 窗의 轉注자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 窗의 轉注자는 窻이 되고 牖자는

52)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2009, p.143.

53)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p.318.

曷의 後期字이다. 曷자는 日이 뜻을 나타내고 甫가 소리를 나타낸다. 日은 즉 갑골문 明자를 𠄎자로 쓴 것은 日을 따른 바이다. 𠄎 𠄏 𠄐은 이체자이다.(倫以爲曷爲窗之轉注字. 窗之轉注字爲窓. 曷字曷之後期字. 曷. 從日甫聲. 日即甲文明字作 𠄎者所從之日. 𠄎 𠄏 𠄐之異文也.)<sup>54)</sup>

牖자에서 戶는 초기에 日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창을 나타내는 曷에서 戶대신 日이 쓰인 것으로 보아 牖자의 초기자는 日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明자의 日은 창(窗)을 뜻하는 𠄎을 대신한 것이다. 曷에서 日은 창문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牖는 외부와소통하고 밝게 해주는 창문의 기능과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 天牖혈에 쓰인 것이다.

(2) 牖의 자형 演變

<표 4> 〈字形表〉

字形 字體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55)</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불견	불견				牖
出典			說文解字	老子甲20	婁壽碑	

牖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牖는 片, 戶, 甫로 이루어졌다. '片'은 나무기둥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의 몸체(𠄎)와 가지(𠄐)이며 갑골문의 片은 𠄎(갑골문 乙2771. 𠄎 鐵1501, 𠄎 乙2778)<sup>56)</sup>이며 소전은 片인데 기둥과 가지가 위아래로 곡선으로 길게 변화하였다. 고예의 𠄎(老子甲20)과 금예의 𠄎(婁壽碑)에서는 자형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데 나무 기둥의

54)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9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575.

55)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470.

5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景印, 1964, p.303.

세로획이 아래가 굵고 만곡이 전서에 비해 많아졌다. 예서 片的 부수편에 금예는 𠄎(徐夫人管洛碑<sup>57</sup>)인데 片이 아닌 𠄎자의 형태이다. 갑골문에서도 𠄎과 혼재되어 사용되었고 금예에서는 片이 𠄎자로 대신 쓰인 것으로 보아 고대에서 한대까지도 혼용되어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牖에서 甫(用과 父의 형성자)는 소전 𠄎(甫)과 고예 用(用), 금예 甫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 用을 바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甫는 一은 用자 위의 자형(父 𠄎)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用은 갑골문부터 예서까지 자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 갑골문의 用은 𠄎, 𠄎(갑골문 鐵116.1, 𠄎鐵1304.)<sup>58</sup>이며 상부의 가지 모양이 하나 또는 두 개이며 사선으로 위로 뻗은 모양이다. 금문 이후에는 一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금문은 𠄎(公史簋<sup>59</sup>)이며 소전(𠄎), 고예는 𠄎(睡虎地簡25.50), 用(縱橫家書15)이며 금예는 用(武威簡小牢<sup>1</sup>)<sup>60</sup>이다. 소전이후 𠄎은 고예 부터 가운데 상부의 세로획(山)이 짧아진 (𠄎) 형태가 되고 금예에서는 상부의 가로획을 왼쪽으로 연장한(𠄎) 형태가 되어 지금의 用자가 된 것이다.

갑골문의 甫는 𠄎(林2.14.6)<sup>61</sup>이고 금문 𠄎(蘇甫人盤)<sup>62</sup>은 用자에 父를 추가한 자형이다. 전서는 𠄎인데 금문과 같다. 상단의 가지 모양과 위를 향한 짧은 수직선은 손에 도끼를 든 자형(𠄎)이며 도끼는 수직으로 위로 향해있고 손은 사선 방향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 고예는 甫(臨虞宮高鐘)이고 금예는 甫(禮器碑)<sup>63</sup>이다. 고예 甫는 도끼(一)와 손(𠄎) 부분이 𠄎한 형태로 직선화 되었다. 금예에서는 손(𠄎)이 생변되어 짧은 수직의

57)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470.

58)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景印, 1964, p.152.

59)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225.

60)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222.

6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景印, 1964, p.154.

62)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230.

63)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222.

세로획과 꼬리가 긴 일직선의 燕尾(一→一) 형태로 바뀌었고 도끼 부분은 점(一→●)으로 대체되었다.

## 2) 穴 자리의 名義

膈는 天膈이라는 혈 자리에 쓰이는 글자이다. 다음은 天膈(手少陽三焦經 16)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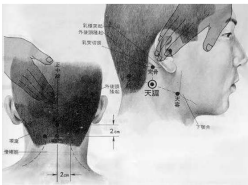


그림 3. 天膈

『靈樞本輸』『甲乙』에 혈은 목의 근육사이에 있다. 缺盆혈 위, 天容혈뒤, 天柱혈 앞, 完骨의 뒤, 머리털(髮際)위에 있다. 귀옆 뒤에一寸이고, 膈으로 氣가 통하고 귀는 天部의 窓膈가 되어서 天膈라고 하였다. (穴在頸筋間 缺盆上 天容後 天柱前 完骨後 髮際上 俠耳後一寸, 膈以通氣 耳爲天部之窓膈, 故名天膈<sup>64</sup>)

天膈는 귀 뒷부분의 높은 자리에 있어 天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었다. 또한 인체의 에너지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눌 수 있는데 횡격막위의 상초에 해당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膈는 창문으로 외부와 소통을 하고 밝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天膈혈 옆에는 귀가 있는데 귀는 외부와의 소통을 하는데 창문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

## 4. 極泉

極泉은 手少陰心經의 1번째 자리로 이 혈 자리의 部位는 팔을 들어 올리고 겨드랑이를 벌렸을 때 겨드랑이 중간 지점이다. 겨드랑이 동맥내측이다. (舉臂開腋時, 腋窩中間點. 腋動脈內側.) 主治는 肩關節周圍炎, 肩關節炎, 心絞痛<sup>65</sup>, 脅肋疼痛에 쓰인다.<sup>66</sup>)

64) 李相龍, 『經穴學』, 청홍(지상사), 2007, p.609.

65) 心絞痛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일컫음

66) 李炳國(1988), 『알기쉬운 經穴圖』, p.69.

다음은 極泉 이라는 혈 자리에 쓰인 '極'의 자원과 자형을 분석하여 혈명과 한자 자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 1) 極 의 字源

### (1) 極의 자원분석

許慎은 極에 대해 『說文·木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極은 '용마루'이다. 木이 뜻을 나타내고 夗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渠力切(극←격)이다. (棟也. 从木夗聲. 渠力切)<sup>67)</sup>

許慎은 '極'의 본의에 대해 '용마루'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極은 용마루이다. 李奇의 注 『五行志』와 薛綜의 注 『西京賦』에서 모두 말하기를 '三輔 에서는 梁을 이름 하여 極이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 棟이 極이 된 것은 바른 명칭이다. 지금 俗語로 모두 棟을 梁이라 부른다. 『搜神記』에 '한나라 때 漢蔡茂가 夢坐 大殿에 앉아서 꿈을 꾸었다. 태극전(太極殿) 위에 하나의 벼에 세 개의 이삭이 있었다.' 主簿郭賀가 말하길 '태극전 위에 벼가 있었다.'고 하였다. 신하의 上祿이다. 이는 곧 梁을 이르는 것과 비슷하다. 내 생각에 『喪大紀』의 注에서 '危는 용마루 위이다.'라고 하였다. 引伸된 뜻이다. 무릇 높은 곳에 이르고 먼 곳에 이른다는 것을 모두 極이라고 한다.(極, 棟也. 李奇注五行志, 薛綜注西京賦皆曰 三輔名梁爲極. 按此正名棟爲極耳. 今俗語皆呼棟爲梁也. 搜神記. 漢蔡茂夢坐大殿. 極上有禾三穗. 主簿郭賀曰 極而有禾. 人臣之上祿也. 此則似謂梁. 按喪大紀注曰. 危, 棟上也. 引伸之義. 凡至高至遠皆謂之極.)<sup>68)</sup>

67)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2009, p.120.

6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p.253. : 한(漢) 나라 때 채무(蔡茂)란 사람이 태극전(太極殿) 위에 하나의 벼에 세 개의 이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뛰어올라 벼를 잡았는데, 그 후에 벼슬이 승진되었다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許慎은 極을 '용마루'라고 하였는데 段玉裁는 梁 棟 極이 모두 집의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같은 의미로 보았다. 極은 지극히 높고 먼 곳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馬叙倫은 『古文字詁林』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徐鍇가 말하길 極은 용마루(屋脊)의 棟이라고 하였고 또한 玉筠은 薛徐注 12西京賦孟康注 漢書枚乘傳章懷主 後漢書蔡茂傳에서 모두 梁을 極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極은 스의 후기자이며 스은 棟의 형태이다. 즉 極이 棟의 轉注자가 된 것은 의심 할 바가 없다. (徐鍇曰. 極. 屋脊之棟也. 桂馥曰. 漢書天文知音義引李奇曰. 三輔間名棟爲極. 玉筠曰. 薛徐注西京賦孟康注漢書枚乘傳章懷主後漢書蔡茂傳. 皆以梁爲極. 倫按極爲ス之後起字. 스象棟形. 則極爲棟之轉注字無可疑者.)<sup>69)</sup>

馬叙倫은 許慎과 段玉裁와 마찬가지로 棟과 極을 같은 의미로 보았다. 極을 스의 후기자로 보았는데 스자가 棟의 형태와 같기 때문이다. 梁 棟 極 스은 집의 상부를 가리키는 글자이므로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쓰인 것이다.

## (2) 亟의 자원분석

許慎은 亟에 대해 『說文·二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빠르다(敏疾)’이다. 人, 口, 又, 二로 이루어 졌고, 二는 天地이다. 반절은 紀力切(력) 또는 去吏切(기)이다. (敏疾也. 从人 从口 从又. 从二. 二天地也. 紀力切 又去吏切. )<sup>70)</sup>

다음은 『古文字詁林』에서 極의 자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이다.

69)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5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867.

70)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2009, p.286.

林義光: 二를 하늘과 땅으로 여겼다. 亟은 ‘급하다’ 이다. 사람이 협소한 가운데에 있고 추궁을 당하여 놀라 부르짖는 모습이다. 二는 협소한 모양이다. ㄱ을 따른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及자와 더불어 같은 뜻이다. 口를 따른 것은 놀라 부르짖는 모습이다. 支를 따르고 더불어 又를 따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以二爲天地. 亟, 急也. 象人在險中被追驚呼. 二象隘从ㄱ持人. 與及字同意. 从口. 驚呼之象. 从支與从又同意.)

于聲吾: 亟은 옛날의 極자이다. 𠄎자 또한 亟의 초기 글자이다. 亟자의 가운데가 人을 따르고, 그리고 위와 아래에는 二의 가로 획이 있는데, 위는 정수리에 이르고, 아래는 발꿈치에 이르며, 極의 本義가 잘 드러남을 볼 수 있을 뿐이다.(甲骨文有 𠄎字 唐蘭同志云... 疑亟字所從出. 亟, 古極字. 𠄎又爲亟之初文. 亟字中从人, 而上下有二橫畫, 上極于頂. 下極于踵, 而極之本義昭然可觀矣.) 71)

極은 여러 학자들과 초기의 갑골문등 여러 자형들로 이루어 볼 때 형벌을 의미하는 𠄎자가 亟으로 파생되었고 木을 추가하여 집의 처마와 마룻대의 極자가 되었다.

(3) 極 亟의 자형 演變

<표 5> <字形表>

字形 字體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72)</sup> 379면		楷書
				古隸	今隸	
字形	불견	불견				
出典			說文解字	孫子116	華山廟碑	

字形 字體	甲骨文 <sup>73)</sup>		金文 <sup>74)</sup>			小篆	隸書 <sup>75)</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出典	天 80	簠雜 130	牆盤	毛公 層鼎	曾大 保盆		孫子75	居延簡甲 558	

71)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10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161.

72)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379.

極은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는다. 極은 '木'과 '亟'이 결구되어 있는데, '木'은 나무를, '亟'은 사람이 어떤 틀에서 형벌을 받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이다. 갑골문의 木은 𣎵(甲 600)<sup>76)</sup>인데, 위로 곧게 뻗은 가지와 줄기, 뿌리를 상형하였다. 금문도 𣎵(父丁爵)<sup>77)</sup>와 같이 써서 갑골문과 같다. 소전에서는 가지와 뿌리를 곡선으로 써서 𣎵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古隸의 木은 𣎵(睡虎地簡 18.176)와 같이 썼는데, 갑골문이나 금문과 같이 여전히 위, 아래로 뻗은 가지와 뿌리를 곧게 써서 변화가 크지 않으나 今隸에서는 木(西狹頌)<sup>78)</sup>로 써서 나무의 가지 부분을 소전에서 곡선으로 썼던 것을 一과 같이 가로로 곧게 퍼진 형태로 썼다.

갑골문의 亟은 口와 又가 보이지 않는 𠄎, 금문부터 口, 又, 卜이 결합된 자형이다. 금문의 亟은 亟(毛公盾鼎)인데 상하의 좁은 틀에 사람을 가두어 입과 손으로 꾸짖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 위의 一은 위의 형틀 또는 하늘을 가리키며, 아래의 一은 아래의 형틀 또는 땅을 표시하였다. 가운데의 卜자형은 사람이 옆모습이며, 𠄎, 𠄎, 𠄎은 입과 손 그리고 나뭇가지를 상형한 것으로 형벌의 도구이다.

亟에서 𠄎(人)자는 사람의 측면을 상형한 것인데 갑골문의 𠄎은 두경부(𠄎)와 구부러진 체간(𠄎) 그리고 팔(𠄎)과 다리(𠄎)가 구분되어 알아볼 수 있는데 금문 𠄎은 머리와 팔을 제외한 부분이 | (𠄎)처럼 직선화되었다. 소전에서 갑골문과 금문처럼 자형의 큰 변화가 없으나 팔과 다리를 비롯한 인체의 측면을 곡선으로 써서 𠄎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고예에서는 팔의 부분까지도 획의 길이가 짧아진 𠄎의 형태가 되었으며 금예에서는 팔(𠄎)을 제외한 인체의 측면(𠄎)을 완전히 직선화한 형태가 (𠄎)이다.

73)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1037.

74)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80.

75)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961.

7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景印, 1964, p.259.

77)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389.

78)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361.

極과 𠄎자에서 口는 ㅂ자 모양을 하고 있다. 갑골문은 𠄎 (갑골문2.7甲1215)<sup>79)</sup>인데 입의 아래와 위 부분을 상형한 것이며 상부의 양옆 뾰족한 부분은 입 꼬리이다. 𠄎에서 口자는 금문부터 보이는데 금문(𠄎)과 소전(𠄎)에서는 자형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고예(𠄎)에서는 전서의 곡선과 입꼬리 부분이 남아있으나, 금예의 𠄎은 입꼬리가 생면된 직선적인 口의 형태가 되었다. 또한 極자의 고예와 금예에서의 口는 𠄎의 금예의 예와 같다.

又是 손가락의 개수를 줄인 오른손의 손(𠄎)을 상형한 것이고 攴은 손(又)에 가지가 달린 막대기(扌, 扌)를 잡고 있는 것이다. 𠄎의 攴은 금문(𠄎)부터 보이며 소전에서는 攴이 아닌 又가 쓰였는데 소전은 갈퀴의 모양의 손과 손목을 (𠄎→𠄎)로 썼다. 고예와 금예에서는 막대의 가지 부분과 가운데 손가락과 손목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어(𠄎→𠄎→𠄎) 직선화되었다. 又의 갑골문은 又 (甲689.)인데<sup>80)</sup>, 손가락의 개수를 줄인 오른손의 손(𠄎)을 상형한 것이고 금문도 𠄎(史頌簋)<sup>81)</sup>와 같은데 가운데 손가락과 손목이 긴 형태가 되었다. 소전은 𠄎인데 금문과 유사하다. 고예의 又는 又(老子乙2335下)<sup>82)</sup>와 같이 썼는데 금문과 소전의 아래로 길고 곡선적인 형태에서 옆으로 길며 가운데의 손가락과 손목부위가 燕尾같은(𠄎→𠄎) 모습으로 변화였다. 금예 又(史晨碑193)는 고예와 같은 형태이며 해서의 又와 유사하다. 又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𠄎→𠄎→𠄎), (𠄎→𠄎→𠄎)

極에서 又는 예서에서는 又와 攴에서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𠄎자의 금문에서는 攴이 보이나 소전에서는 又로 예서에서는 攴자가 다시 나타났다가 해서에서는 攴이 사라지고 又만이 쓰이게 되었다.

79)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39.

80) 方述鑫의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114.

81)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181.

82)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193.

## 2) 穴 자리의 名義

極은 極泉, 中極이라는 혈 자리에 쓰이는 글자이다. 다음은 極泉(手少陰心經<sup>1)</sup>)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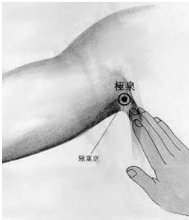


그림 4. 極泉

『甲乙』에 혈은 겨드랑이 아래 筋사이 동맥이 있는 곳이다. 가슴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手少陰心脈의 腋穴이 된다. 심장은 임금의 관직이고, 그 혈이 매우 높아 임금이 등극한 것과 같다. 심맥의 흐르는 것은 샘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極泉'이라고 한다. (穴在腋下筋間動脈 入胸中 爲手少陰心脈之腋穴. 心者 君主之官, 其穴甚高 如君登極 至高無上, 心脈流注 似泉水下流, 故名極泉)<sup>83)</sup>

極은 옛날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곳인 처마나 용마루를 나타내기 위해 어느 곳에 이른다는 亟자에 木을 더하여 極자를 만들었다. 심장은 한의학에서 衞의 자리이다. 팔을 옆으로 벌리면 그 모습이 처마와 같은 모습이고 또한 가장 높은 자리임을 나타내기 위해 용마루, 들보, 처마의 의미를 가진 極자를 취한 것이다. 極泉은 심장의 첫 번째 血이다. 그 流注방향<sup>84)</sup>은 겨드랑이에서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에 이르는데 泉은 모든 물의 근원이고 처음 시발점이므로 첫 번째 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겨드랑이는 血관과 神經이 모여 지나가는 자리이고 그 흐름이 샘물의 흐름과도 부합하여 이름 한 것이다.

83) 李相龍 『經穴學』, 청흥(지상사), 2007, p.306.

84) 한의학에서 經絡은 일정한 순행경로가 있다. 流注란 經絡과 經絡사이 또는 하나의 經絡 선상에서 첫 번째 血에서 마지막 血까지의 흐름의 순서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기립자세에서 만세를 취한자세를 기본자세로 삼는다면 陰의 장기에 속하는 經絡은 시작점에서 하늘을 향해 流注하고 陽의 장기에 속하는 經絡은 땅을 향해 流注한다.

### Ⅲ. 結 論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혈 자리와 혈명으로 쓰인 한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인체의 361개의 혈 자리 중 '地倉', '靈臺', '天牖', '極泉' 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地倉'의 '地'와 '倉', '靈臺'의 '臺', '天牖'의 '牖', '極泉'의 '極'에 대한 한자의 자원과 자형을 분석하여 혈명에 쓰이게 된 배경과 근거를 파악하였다.

地倉 혈 중 '地', 즉 땅의 기운은 만물의 기운을 감싸고 모든 생물을 태동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地는 음양오행(木火土金水)에서 土에 배속된 臟器이다. 옛 사람들은 코를 중심으로 삼등분하여 코 윗부분을 天, 중간부분을 人, 아랫부분을 地라 하였다. 그 혈자리가 입의 가장 자리에 있어 地의 위치에 해당된다. 地의 금문은 隆로 후에는 也와 它이루어진 陔와 陔로 썼다. 소전에서야 현재의 地자가 보이는데 土와 也로 이루어졌다. 土는 흙무더기를 상형한 것이고 也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데 它자가 대신한 것으로 보아 뱀의 모양이 변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倉은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는 곳집이며 人, 宀(스), 戶, 口로 이루어진 한자이다. 倉자에서 人은 인간의 뜻이 아닌 장막, 창고, 또는 저장고의 덮개나 지붕이고 一은 들보이다. 戶는 외쪽문을 나타내고 口는 건물의 기단이다. 입은 음식물의 일차적인 저장소이므로 입을 '곳집'에 비유하여 이름한 것이다. 또한 '地倉' 혈은 위경락에 속하므로 위의 모양과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地의 기능과 위치를 고려하여 地倉이라고 하였다.

靈臺혈에서 靈을 『釋名』에 心을 靈臺라고 하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靈이 心臟과 연관된 한자임을 알 수 있다.

臺는 흙을 견고하고 높게 쌓아서 사방을 볼 수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축물을 일컫는다. '높은 곳'이라는 위치적인 면과 위에서 사방을 볼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의미적 요소를 심장에 비유하여 이름한 것이다.

靈臺혈은 部位는 제6~7흉추 극돌기 사이에 있는데 심장은 흉추 5~8번의 사이에 위치하므로 穴名이 해부학적 위치와도 부합된다. 臺는 之(ㄋ), 高(ㄱ)의 생략형, 至(ㄷ)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之(ㄋ)는 臺의 상부를 상형한 것이고 高는 고대의 이층구조의 건축물로 높은 위치와 사방을 볼 수 있는 곳이고 至(ㄷ)는 聲部로 작용하였다. 즉 ‘靈臺’ 혈은 심장과 관련이 있고 臟器중에 心臟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관리감독의 중요한 자리여서 이름한 것이다. 天膈혈은 귀 뒷부분의 높은 자리에 있어 天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었다.

膈는 벽을 뚫어 나무를 엇갈려서 만든 창문이다. 창문은 외부와 소통을 하고 밝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膈는 片, 戶, 甫로 구성된 한자인데 天膈혈은 귀 뒤에 위치한다. 창문과 귀의 형태와 기능을 고려하여 이름 하였다.

極泉혈의 極은 옛날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곳인 처마나 용마루를 나타내기 위해 어느 곳에 이른다든 𠂇자에 木을 더하여 極자를 사용하였다. 𠂇은 사람 人을 옆으로 눕혀 머리와 발이 형틀(二)에 닿게 고정해 손(又)과 입(口)으로 벌하는 모습을 상형한 자로 형벌을 의미한다. 심장은 한의학에서 군주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자리임을 나타내기 위해 용마루, 들보, 처마의 의미를 가진 極자를 사용한 것이다. 極泉은 심장의 첫 번째 혈이다. 그 유주방향은 겨드랑이에서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에 이르는데 泉은 모든 물의 근원이고 시발점이므로 첫 번째 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겨드랑이는 혈관과 신경이 모여 지나가는 자리이고, 그 흐름이 샘물의 흐름과도 부합하여 이름한 것이다.

인체의 혈자리에 쓰인 혈명은 자원의 분석과 동양의 음양오행사상 및 사상적 배경 없이는 명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논자는 361개의 모든 혈명에 쓰인 한자의 자원과 자형을 분석하여 혈명과의 관계를 밝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한자학과 한의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혈명과 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 〈參考 文獻〉

### ■ 원전류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1987.  
段玉裁, 『說文解字注』, 北京: 上海古籍出版社, 1981.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 編著, 『甲骨金文字典』, 成都: 巴蜀書社, 1993.  
容庚 編著,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92.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北京: 中華書局影印, 1964.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5.  
許慎 撰,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4.

### ■ 저작류

- 金丞洙 編著, 『鍼灸 扁鵲寶鑑』, 서울: 주식회사 성한앤드김, 1995.  
박선영 · 김호연, 『韓醫學原論』, 도서출판異彩, 2016.  
백봉 정대협 편역, 『천금익방』, 도서출판도화연, 2017.  
이규갑 著, 『漢字學教程』, 서울: 차이나하우스, 2009.  
이병국, 『알기쉬운 經穴圖』, 서울: 침코리아 사이버 아카데미 출판부, 1988.  
李相龍, 『經穴學』 서울: 청홍(지상사), 2007.  
李智, 지음 권승원, 김지혜, 한가진 옮김 『經絡經穴103』, 서울: 청홍(지상사), 2017.

### ■ 사전류

- Heinz Feneis, Wolfgang Dauber, 정인혁 옮김, 『해부학용어 그림사전』, 서울: 아카데미아, 2007.  
民衆書林 編輯局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民衆書林, 1992.  
張三植 編著, 『漢韓大辭典』, 서울: 教育圖書, 1996.  
전광진 편저,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 서울: LBH교육 출판사, 2013.  
蔡仁植, 權賢德, 邊元九, 『韓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史, 2002.  
漢語大詞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 논문류

董譽霞, 「中醫穴位術語命名認知研究」, 西南民族大學 碩士論文, 2015.

王奇偉, 「漢語經穴命名研究」, 吉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1.

李鎬植, 「穴자리의 한자학적연구」, 공주대학교 碩士論文, 2019.

■ 인터넷사이트

<https://blog.naver.com/xiuya66> 2020년 1월 12일 11시 18분.

## Abstract

### *A Study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Name of the Acupuncture Point in the Human Body*

Lee, Ho-jik\*

In the East, meridian point was found to be the reaction point of the human body's internal organs to the body's surface and also the therapeutic acupuncture point. Therefore, each acupuncture point, including this meaning, was named using the means of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has repeated its creation and extinction through the steps of inscriptions on bones and tortoise carapaces, an epigraph, Sojeon, square, and ornamental, and the Chinese characters written in Meridian point' name are also considered to be the same.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name written in the current Meridian point' name, an analysis of the 'the principle of Yuk Seo(六書) in Chinese characters' and 'Formation(形), Sound(音), Meaning(義)' is required.

In this paper,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buildings were selected out of 361 acupuncture point in the human body. The selected Chinese characters include 倉 of 地倉(stomach Meridian System No.4) acupuncture point, 臺 of 靈臺(Governor Vessel Meridian No. 10), 牖 of 天牖(Triple Energizer Meridian No. 16) and 極 of 極泉(Heart Meridian No. 1). However, errors sometimes occur because 'the shape of a character(字形) or 'pronunciation of a characters(字音)' of the Chinese characters used today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ones. Therefore, based on Heo Sin's "Surveyor"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名義) of the acupuncture point, various track records and the greatness presented by Chinese medicine were compared and analyzed. We also looked at the pronunciation of a characters(字音), the source of a letter composition(字源) and change of formation letters through the analysis of ancient the shape of a character centered on sound part(聲符) and formation letters(字形).

The 地's acupuncture point is located on the tail of the mouth, which is the edge of the

---

\* The doctor's course in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gju University / bule7028@naver.com

mouth. The word '地' in 地倉 was considered to be the function of the earth and the mouth was the location of the earth among sky(天), earth(地), and human(人) in the facial part. '倉' was named as follows because '地倉's acupuncture point' belongs to '胃's Meridian system and '胃' is the storehouse of grain. At the 靈臺's acupuncture point, '靈' is the heart and '臺' is a Hyoungsungja(形聲字) made by the method of formation(形成) in Chinese characters. '臺' is named as follows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ancient building located in a high pl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heart located in a high place, it's the same function that supports the human body. In '天牖's acupuncture point, '天' was named to reflect that the acupuncture point is located next to the ear. Also, '牖' is named by comparing the ears to the functions of ancient windows. In '極泉's acupuncture point, '極' means that the acupuncture point is located under the armpit and its shape is like that of a cornice. In addition, Also, '泉' was named as the first place to start like a spring water.

If you analyze and organize the Chinese characters '形, 音, 義' and 'source of a letter composition(字源)' written in the human body's acupuncture point, you will be able to give objective and persuasive information to those who study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medicine.

**【Key words】** Thange of formation letters, Source of a letter composition(字源), The meaning of a name, Pronunciation of a characters(字音), Meridian point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13일, 게재확정일 : 6월 22일

